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254호【루계 제25032호】주체104(2015)년 9월 11일(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신의주측정계기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국방부문에 쓰이는 새롭고 현대적인 측정계기들을 연구개발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첨단측정계기를 조선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한것은 경이적인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식의 최첨단 측정계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의 명예지배인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공장의 일군들, 로동계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UPI통신,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풍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뿌마, 말레이시아, 스위스에서 경축집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4일과 5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소개하는 사진,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뿌마 양끈체육 및 신체교육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말레이시아 치아신 트레블씨비스련행사 리사를 비롯한 인사들은 사진 및 도서전시회를 통하여 김정은령도자께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강화발전시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반만년력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령도로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사회주의조선은 더욱 번영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에서 8월 31일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좌담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말레이시아 스펙트름 액시스 유한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는 만민이 공인하고 흠모하는 세계정치원로이시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받들어 선군정치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위용을 누리에 빛내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개대상책임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조선은 령토는 비록 크지 않지만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된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체104(2015)년 10월 초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전시회기간 각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의지가 뜨겁게 분출되는 위인칭송의 대정치축전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번영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혁명렬사 류경수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렬사 류경수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김기남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황순희동지를 비롯한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보고를 인민무력부장인 룡군대장 박영식동지가 하였다.

보고회는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혁명신념을 심장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보고회는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혁명신념을 심장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열의안고

여러 로선의 쑥섬인입다리공사 마감단계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열렬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벅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거창하게 벌어지는 충성의 다리와 쑥섬을 련결하는 여러 로선의 인입다리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쑥섬을 돌아보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면서 쑥섬과 련결된 충성의 다리를 개건보수하며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재 평천지구와 통일거리 방향에서 쑥섬으로 오가는 사람들과 룝전기제품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새로 형성되는 인입다리들의 기본구조물공사가 모두 끝나고 전구간에 천연화강석란간을 세우는 작업이 60%계선을 넘어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도건설위원회와 록해운성, 철도성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과학기술전당건설장과 함께 대동강의 푸른 물결우에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위훈의 활무대를 펼쳐놓았다.

방대한 목표를 최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공사는 시작부터 대격전이였다.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대상을 반드시 기한전에 다그쳐 끝낼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모든 현장들에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건설의 공업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표밑에 수많은 콤 전기재와 건설장비들이 다리공사에 투입되였다. 단위별로 방대한 량의 버팀목과 휘들을 비롯하여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공격전의 열풍속에 공사성과는 시간과 날이 갈수록 확대되였다.

로선이 제일 긴 쑥섬인입다리-1건설을 맡은 록해운성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이 가물막이와 다리기둥 및 상판공사과정에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뚜렷이 증명하였다. 이곳 현장정치부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자 비상한 공사속도라는 판점을 지니고 공사전기간 격동적인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였다. 이곳 전투원들은 규모가 큰 다리공사의 특성에 맞게 조립일체식다리상판시공방법을 비롯한 20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며 구조물공사를 끝내고 란간세우기를 추진하고있다.

철도성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수천㎥의 버팀목을 대신하는 대용자재를 대대적으로 리용하는 등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착공후 몇달안에 맡은 다리의 기본구조물공사를 끝내고 란간돌조립실적을 계속 높이고있다.

수도건설위원회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당에서 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연길폭탄정신을 본받아 수십개의 강판통체를 자체로 확보하고 공사초기에 열흘이상 걸리던 한개의 다리기둥을 마감단계에 가서는 2일에 한개씩 형성하고 란간세우기도 빠른 속도로 끝내는 비상한 돌격정신을 발휘하였다.

모든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에 떠받들려 최단기간에 견고하고 보기에도 희한하게 일떠선 인입다리들은 지금 현장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의 래일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방대한 규모의 인입다리구조를 최단기간에 형성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란간세우기를 비롯한 나머지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이기 위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완공, 운영 시작

제남탄광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제남탄광 5갱구역에 또 하나의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탄광부문에서 벨트콘베아를 놓아 운반을 다양화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운반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여러 갱들에서 생산되여나오는 석탄을 종합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 뽑아내면서 석탄운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을 단계별로 꾸준히 벌려왔다.

5갱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역시 지심깊이 뻗어나간 갱의 석탄을 더 빨리, 더 많이 뽑아낼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5갱구역에 새로 놓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고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들어설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석탄공업성과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5갱의 갱막장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들여앉히자면 사갱구역에서 굴진공사가 선행되여야 하였다.

탄광의 생산전망을 열기 위하여 조직된 직맹돌격대의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백m구간의 사갱굴진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세웠다.

덕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려 벨트콘베아수송선 상부를, 하부를을 비롯한 설비부분품제작과제를 제기일안에 끝내였다.

탄광공무기지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벨트콘베아수송선설치에 필요한 설비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설비조립성과를 나날이 확대하였다.

탄광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걸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5갱 천수백m구간에 전차운반을 대신하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나 정상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서부지구 굴지의 탄광에서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광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룡양광산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가금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

농업과학원에서 우리 식의 효능높은 수의약품들을 개발

최근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가금업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효능높은 수의약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였다.

과학자들이 개발한 수의약품들은 닭과 병아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들인 추백리와 파라티브스를 치료, 예방할수 있는 약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추백리와 파라티브스는 가금업과 사람의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위험한 병의 하나로 되고있는 전염병들이다. 현재 이 병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는 두가지 병에 적용할수 있는 약찐을 따로따로 만들어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가금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약찐들을 수입하여 리용하였는데 약찐을 접종한 닭들에게서 먹성이 떨어지거나 다리를 저는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한다.

수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 전염병들에 적용할수 있는 약찐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원사 교수 박사 박동호동무와 김철건, 김선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과학자들은 종전의 값비싼 약찐들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우선 두가지 전염병에 다 적용하여 완전히 막을수 있는 약찐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약찐생산용균이 가지고있는 독소를 중화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과학자들은 또한 배양기원료로 다른 나라에서 흔히 쓰는 소고기대신 우리 나라에 풍부한 콩을 리용하고 젖제도 우리 식으로 란황젖제를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만든 우리의 추백리-파라티브스죽인균란황젖제약찐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젖제약찐의 효능을 비교검정한 결과 수입산약찐을 접종한 닭에서는 병원균이 검출되였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만든 약찐을 접종한 닭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약찐을 평양시안의 여러 닭공장들의 알낳이닭 10만마리에 접종해본 결과 닭알과 병아리에서 두가지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찐접종후 흔히 볼수 있는 먹성이 떨어지거나 다리를 저는것과 같은 증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달동안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접종한 닭의 알낳이률과 병아리의 키우기률이 접종하지 않은것에 비하여 각각 5.2%, 11%더 높은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좋았다고 한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가금과라티브스산균약찐도 개발하였다.

파학자들은 병아리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세균성질병의 원인을 해명하고 종전에 오리에게 리용하던 파라티브스약찐을 병아리와 닭의 추백리-파라티브스예방에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이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인 적용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추백리-파라티브스병원체가 없는 교기와 알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 약찐을 여러 닭공장, 오리공장들의 종자닭과 종자오리 수십만마리에 접종한 결과 종전에 비하여 알낳이률, 알깨우기률, 병아리키우기률을 훨씬 높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룩한 이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3대축의 하나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선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철도를 애호하고 적극 지원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길구간들에 대한 자갈보충과 도랑정리, 철도역과 철길주변을 정리하고 수림화, 원림화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원산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구간에 대한 철길보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상반년에 이어 이달에 들어와서도 현지에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기관, 기업소, 공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이 맡은 철길구간들에 대한 자갈보충과 로반정리를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문천시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함께 철길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되치하여 맡은 구간을 표준철길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천내군에서는 철길고착품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철길너비유지대와 레루못을 비롯한 철길고착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철길보수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안변군에서는 철길구간들에서 나타난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짧은 기간에 없애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철길의 견고성을 보장하고있다.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는 새 품종의 코스모스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철길주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을 경축하는 이 시각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각하와 함께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것을 각하께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제1위원장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
2015년 8월 14일 킨샤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계속 진보와 발전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친선과 련대성의 뉴대를 강화하며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들이 지향하는 진보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해나가려는 의지를 다시금 확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떼플리까
2015년 8월 15일 알쟈자이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 67돐에 즈음하여 짐바브웨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와 각하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형제적인 축하를 보냅니다.

각하

우리는 귀국의 민족사에서 중요한 이날을 함께 경축하면서 우리 두 나라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쌍무협조의 확대를 통하여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무가베
2015년 8월 19일 하라레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 경축일에 즈음하여 잠비아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잠비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귀국이 잠비아의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호상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에드가르 룬구
2015년 8월 24일 루사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일에 즈음하여 인디아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인디아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의 뉴대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쌍방의 호상리익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나브 무케르지
2015년 8월 24일 뉴델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케니아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선적인 관계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 훌륭한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
2015년 9월 2일 나이로비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최대의 축원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는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죠꼬 위도도
2015년 9월 2일 쟈까르따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먄마련방공화국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우리의 가장 따뜻한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계속 성과를 이룩하고 행복하며 번영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먄마련방공화국 대통령
테인 세인
2015년 9월 3일 네이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중외려행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동포결혼상담중앙쎈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뜻깊은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땅에 창조와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창건 67돐을 맞이하여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인민이 주인이 된 자주적인 정권의 탄생을 선포한 민족사적경사였으며 재일동포들에게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 보람찬 새 삶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격찬하였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갈망하던 인민의 나라,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국이 일떠서 어제날 나라잃은 백성의 설음을 안고 갖은 학대속에 살던 재일동포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떳떳한 삶을 향유하게 되였다고 축전들은 밝혔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품으로 믿고 따르며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 불태워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축전들은 언명하였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새 전성기를 개척하는 총련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후꾸야마 마사끼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반신상에

화환 진정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생일 100돐에 즈음하여 10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그의 반신상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반신상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에는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와 리철만내각부총리,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무력, 정권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류경수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 성, 중앙기관, 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 류경수동지를 추모하여》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백옥같은 충정심과 불굴의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충직한 전사로 한생을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류경수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평원군 상송리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더 많은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통신원 한성문

몸소 알려주신 경기소식

오늘 우리 체육인들은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주요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나라의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인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투지, 당이 제시한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싸워 맞다든 강팀들을 여지없이 눌러버림으로써 세계의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보란듯이 휘날리고 선군조선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였다.

우리 선수들의 그 하나하나의 성과마다에는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주체102(2013)년 7월 27일 이날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경사로운 날이였다.

바로 이 뜻깊은 날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자랑스럽게 띄운 미더운 전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의 끌끌한 체육인들이였다.

7월도 다 저물어가고있던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체육인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성과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반가운 소식에 접한 일군들은 환희에 넘쳐있었다.

마냥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잘 싸우고 돌아온 우리 녀자선수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조국의 명예를 떨친 녀자축구선수들을 업어라도 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기쁨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1등을 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를 띄우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백마디, 천마디 말로는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진다고…

우리 조국의 명예를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떨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린 사랑하는 전사들이 그토록 대견하고 기특하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번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1등을 할수 있은것은 그들이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선수들이 경기를 아주 잘한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평균나이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시였다.

순간 놀라움에 넘친 눈빛들이 그이를 우러르고있었다.

전도유망한 나이였던것이다.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의 평균나이속에 맑고 푸른 하늘과도 같이 젊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그대로 비낀듯싶어 일군들의 격정은 참으로 컸다.

우리 선수들이 펼친 통쾌한 경기장면을 열정에 넘쳐 이야기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배구경기를 조직해주시고 몸소 관람석에서 응원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혁명의 난국을 헤쳐가실 신념과 배짱을 안으시고 롱구경기를 보아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우리 조국의 미더운 아들딸들이 세계 그 어느곳에 가서도 가슴펴고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속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하는 세계적인 패권자가 되여 더 많은 금메달과 우승컵을 안고 돌아오리라는것을.

본사기자 리금분

만복이 꽃펴나는 영원한 삶의 요람

《저렇듯 시름없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로자들이 옳은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현실은 나에게 꿈의 세계로밖에 안겨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것은 사람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문수물놀이장을 찾았던 카나다의 한 인사가 터친 진정이다. 문수물놀이장에서만이 아니다.

당의 은정속에 이르는 곳마다에 꾸려진 문화휴식터들이며 창조와 혁신의 동음높은 공장과 드넓은 농장벌을 찾는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부러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꿈의 세계로 여기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 누구나가 다 동등하게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고 너무도 평범하고도 례사롭게 흘러가는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다.

하다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모든 행복상을 놓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102(2013)년 12월에 있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돌이켜보군 한다. 그때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원수님께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일군들이 올린 문건을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당책임일군에게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라고, 이제는 춥다, 춥다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을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동무들에게 자신께서 직접 주는 과업이라고 은정깊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인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면 나라의 천만가지 중대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일군들에게 이토록 절절한 당부를 하시였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베풀어주시던 그 사랑, 그 은정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천이던가, 만이던가.

새집들이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의자모양까지도 몸소 그림으로 그려주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비내리는 건설장의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우리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과도 같은 숭고한 사랑을 떠나 어찌 이 나라 인민들의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이 나라 그 누구에게 물어보라.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우심해졌다고 하여 이 땅에서 무상치료제, 의무교육제의 혜택이 중단된적 있었으며 정세가 복잡하다고 하여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문을 닫은적 있었는가를.

그러면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더욱더 늘어나고 인민의 행복은 커만간다고 진정에 넘쳐 대답한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지켜주고 빛내여주시는 인민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인민공화국이기에, 그 위대한 삶의 터전에서 끝없는 행복만을 누려가는 이 나라 공민들이기에 누구나가 다 한목소리로 이렇게 웨친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며 그 품은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영원한 삶의 요람이라고.

본사기자 정순학

항일선렬들의 혁명신념을 본받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이하고있습니다.

류경수동지의 혁명적생애는 사상과 신념,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열혈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주체4(1915)년 9월 9일 함경남도 신흥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이국땅에서 지주집머슴살이를 하며 망국노의 설움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슬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나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류경수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공적을 세웠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 군단장의 중책을 지니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전후시기에도 류경수동지는 인민무력부문의 중요한 직책에서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드는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류경수동지의 한생이 그토록 빛나는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혁명신념을 지니는데 혁명가의 진가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론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그 전렬에 류경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군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수령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생을 곧바르게 걸어가는데서 류경수는 만사람이 따라배울만 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류경수동지의 혁명신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헤쳐오는 나날에 다져진 억척같은 신념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혁명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며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에도 참가하고 감옥생활의 고초도 겪는 나날에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실 조국해방의 구성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한 류경수동지는 주체22(1933)년 9월 소왕청에서 그처럼 흠모하던 사령관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류경수동지와 담화하시며 10대의 나이에 항일전에 나선 그의 소행을 기특히 여기시여 《어린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두번이나 《민생단》으로 몰려 사경에 처했던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 《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편향을 극복하도록 하시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심으로써 혁명대오에 다시 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혁명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파란많은 인생체험을 통하여 류경수동지의 가슴속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품은 사령관동지의 품밖에 없으며 사령관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조국을 해방할수 있다는 믿음, 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하기만 하면 사지관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되게 되였습니다.

류경수동지는 이런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한생토록 총대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었습니다.

류경수동지의 혁명적생애는 항일선렬들이 피로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삶의 표대로 내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신념이란 무엇이며 그 신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본으로 됩니다.

류경수동지는 드팀없는 혁명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결사보위한 수령옹위의 전위투사였습니다.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은 류경수동지가 모든 사고와 실천의 첫자리에 내세운 최대의 중대사였습니다.

류경수동지가 적구로 들어갈 때마다 많은 대원들을 사령부후위에 떨구어두면서 절대로 사령관동지의 곁을 떠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자기의 비상용쌀주머니까지 남겨놓으며 사령관동지의 식사를 잘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절절히 부탁한 사실은 수령을 모시는 그의 충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웅심깊은것이였는가를 뜨겁게 전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말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시기에 력사적인 남패자회의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에 진출하시였습니다.

당황망조한 일제는 수많은 병력을 백두산서남부일대에 내몰면서 공격의 예봉을 조선혁명의 사령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때 류경수동지는 목기하전투, 다푸르허남쪽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한 결사전에로 대원들을 불러일으키며 그 앞장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시고 천보산일대에로 진출하시였을 때 류경수동지는 웅근 사흘동안 물도 변변히 마시지 못하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싸움을 도맡아하면서 유인전을 자주 조직하여 적들의 주위가 사령부에 쏠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던 시기에 사령부 경위중대장의 임무를 맡은 류경수동지는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백방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수령결사옹위의 일념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령도자를 위하여 한몸을 깡그리 바친 투사의 생은 우리의 혁명전사들이 대대손손 따라배워야 할 영원한 친위병의 모습으로 빛나고있습니다.

류경수동지는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를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결사관철한 열혈의 혁명전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류경수동지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1년 이른봄 한총구에서 류경수동지에게 중요한 련락임무를 주시였습니다.

류경수동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총구는 일제 《토벌대》로 가득차있었고 사령부가 있던 천막자리에서까지 적들의 불무지가 타오르고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막다른 정황이였지만 류경수동지는 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시간까지 이제 남은 30분동안에 불무지가 있는 사령부천막자리주변으로 가지 않으면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생각으로 주저없이 적들이 욱실거리는 한복판을 향해 기여가 마침내 사령관동지께서 남겨두고가신 대원을 만났습니다.

명령앞에서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과 무조건집행밖에 몰랐던 류경수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혜산지구에 파견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였으며 철도경비대를 조직할데 대한 과업과 보안간부훈련소의 한개 분소를 책임지고 정규무력의 핵심들을 키워낼데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기대에 보답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현대적군사기술기재로 장비된 강유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첫 땅크부대를 조직할데 대한 임무를 류경수동지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모든것이 생소하고 걸음마다 난관이 막아섰지만 류경수동지는 견인불발의 의지로 땅크병훈련을 힘있게 내밀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훈련을 시작한지 석달만에 모든 훈련생들을 땅크에 숙련시키고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산악전투조법에 정통시켜 땅크부대건설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칠데 대한 반공격명령을 내리시였을 때 류경수동지는 직접 앞장에서 땅크를 몰고 부대를 지휘하여 전쟁개시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강도하전투와 대전해방전투, 락동강전투를 비롯한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줄데 대하여 하신 교시를 받아안고 류경수동지가 자체로 화선악기를 만들도록 하여 군부대가 싸우는 박달령에서 승전고가 높이 울리게 한 사실은 수령의 명령에 대한 그의 충실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말해주고있습니다.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삶의 요구여야 하며 그 길에서는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라는 투철한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주체위업을 받들어온 류경수동지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로 됩니다.

류경수동지는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청렴결백성을 지니고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참다운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는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지조와 절개를 버리지 말아야 하며 앞에서도 뒤에서도 한모양, 한본새로 살아야 한다는것이 류경수동지의 신조였습니다.

반 《민생단》 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에 좌경배타주의자들이 유격대의 한 중대장을 《민생단》으로 몰아 처형하려고 심관장에 끌어냈을 때 류경수동지는 서슴없이 그를 보증해나섰습니다.

그 당시 류경수동지자신도 《민생단》 혐의자의 명부에 등록되여있었습니다.

《민생단》 혐의자가 《민생단》으로 락인받은 사람을 두둔하거나 동정한다는것은 총구앞에 달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원하는것과 같은 자살행위나 같았지만 류경수동지는 가슴을 내대고 사령관동지의 혁명로선을 받들고 용감히 싸우고있는 수령칭송의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받드는데서 류경수동지가 보여준 충정의 일편단심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평온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혁명의 대가 바뀌는 력사적전환기에도 한결같이 깨끗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의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류경수동지의 값높은 인생행로에는 그를 굳게 믿고 아끼시며 보살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이 뜨겁게 어리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성장과 활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에게 육친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으로 개선하시는 길에서 평양을 보위하는 성벽이 되라는 의미를 담으시여 친히 그의 이름을 《류경수》라고 새로 지어주신데는 전사의 삶을 총대와 함께 빛내여주시려는 친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어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이 지극한 그 사랑으로 1950년 8월 초순 락동강계선에서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있는 류경수동지에게 군사작전명령이 아니라 신변에 최대의 주의를 돌리고 사단지휘부에서 떠나지 말며 식사를 제시간에 하라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사랑의 전보명령문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인민군주력부대들의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맨 뒤에서 들어오는 류경수동지가 걱정되시여 최고사령부의 련락군관을 적후에까지 파견하시였고 도착하면 지체없이 최고사령부로 데려오라고 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에도 전연부대에서 사업하는 류경수동지가 표나는 차를 타고 초소들에 나가면 적들이 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 승용차를 만들어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미더운 전사의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앓을 때에는 구체적인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고 보약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류경수동무가 싸움을 제일 잘하였다고, 류경수동무는 자신과 오래동안 같이 싸운 좋은 사람이였다고 하시면서 투사의 고향인 신흥군에 그의 동상을 세우도록 하시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생전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유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을 이으시여 류경수동지의 생을 끝없이 빛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남달리 높았던 류경수동지의 혁명신념과 투쟁정신을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우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류경수동지가 부대장으로 사업하던 땅크부대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고 부대의 명칭도 투사의 이름과 함께 부르도록 하여주신것은 그의 삶과 공적을 선군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표시로 됩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제일선배로, 혁명가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존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덕과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류경수동지의 생애와 투쟁공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변함없이 빛나고있습니다.

장구하고 파란많은 혁명의 길에서 류경수동지가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태를 잃지 않고 끝까지 혁명에 충실할수 있은 비결은 그의 심장속에 당과 수령의 믿음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저버릴수 없다는 강의한 혁명신념과 량심,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고동치고있었기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그 신념을 변함없이 지켜싸우는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삶의 전부로 여겨온 바로 이것이 류경수동지의 한생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 혁명렬사 류경수동지는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로, 혁명신념의 강자로 영생하고있으며 그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최후승리를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장엄한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항일선렬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행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신념은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금보다 귀중한 재보입니다.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신념으로 지켜온 수령옹위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눈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끈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순결무구하고 강의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혁명신념의 제일강자로, 김정은결사옹위의 총폭탄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시대를 격동시키는 자랑찬 성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5대교양을 강화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우리의 혁명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백두의 혈통, 신념의 피줄기를 이어받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준비하며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와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의 용맹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좁은철길이설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량강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성과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침수지역 좁은철길이설공사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떨쳐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현재 로반형성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면서 암거, 옹벽을 비롯한 70여개의 소구조물공사를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맞게 침수지역 좁은철길을 하루빨리 이설하여 이 지구 인민들이 교통상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사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여러차례 현장에 나와 답사를 진행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고있다.

도현장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매 공정을 따라가며 일정계획이 정확히 수행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지휘부일군들은 기계화수단들과 로력이 증강될데 맞게 도급기관들, 혜산시와 각 군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공사에 동원된 모든 단위들이 맡은 일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들끓는 전투현장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여 공사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김형직군과 운흥, 삼수, 백암군의 건설자들은 8월말까지 자기들이 맡은 방대한 로반공사과제를 완전히 끝내고 자갈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다른 군들의 건설자들도 로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는것과 함께 자갈확보에 힘을 넣고있다.

대홍단군에서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고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맡겨진 구간의 절토, 성토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제끼였다. 백암군 건설자들은 전투현장가까이에 숙소를 기동적으로 전개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절토, 성토공사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가장 어려운 철토구간을 맡은 운흥광산과 신파청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높은 산중턱을 타고앉아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여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상단지구 전철중대건물공사를 맡은 혜산철도분국의 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그려보면서 기본골조공사를 끝내고 자갈지금 지붕공사와 내외부미장을 다그치고있다. 혜산시와 백암탄광의 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로반공사에서 련일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활동과 방송선전차, 직관선동을 통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이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좁은철길이설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철도성과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공사장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여문률을 높일 방도를 찾아쥐고

‖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와 만난 농장일군은 벼이삭이 여무는 포전들에 천연생물활성제를 분무하면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알곡을 더 증수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농사에서 낟알의 천알질량은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로부터 지난해 농장기사장은 제1작업반의 포전들을 시험포전으로 정하고 벼가 여물기 시작하여 받을일이 누렇게 될 때까지 천연생물활성제에 일정한 량의 뇨소비료를 섞어서 여러번 분무하도록 하였다. 가을걷이시기에 보니 이 활성제를 준 포전의 정보당 수확고는 높았다.

현실은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증명해주었다.

무슨 일이나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야 성과가 크다.

농장일군들은 논벼농사를 짓는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이 활성제를 분무하도록 하였다.

이때 농장일군들이 잘한것은 보여주기사업에 농장원들까지 참가시키고 제1작업반 초급일군을 출연시킨것이다. 물론 지난 시기처럼 분조장이상 일군들을 참가시키고 농장기술일군이 출연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농장원들이 지난날의 농사방법에서 졸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조건에서 활성제를 직접 분무하면서 농사를 지은 작업반초급일군의 경험을 들어야 더 잘 리해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던 날이였다. 천연생물활성제에 뇨소비료를 섞는 비률과 분무하는 시간, 정보당 주는 량, 논벼여물기에 주는 영향 등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게 하자면 기술적요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따라서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파시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활성제분무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농장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농장원들이 천연생물활성제를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인데 맞게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든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활성제를 분무하자니 로력이 더욱 긴장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이 활성제를 한번만 분무하여도 성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아침부터 오후 4~5시까지는 가을걷이준비를 하고 그후부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 활성제를 집중적으로 분무하자, 그리고 중요농기계와 농기구수리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로력문제를 풀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에서는 일과조직을 그에 맞게 하였다. 따라서 가을걷이준비를 하면서도 논벼포전들에 이 활성제를 여러번 분무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천알질량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현실은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찾아내고 농장원들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알곡증수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10월의 대축전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로 사회주의협동벌이 끓는다

혁신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 중심고리

배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배천군에서 농기계수리정비를 성과적으로 해낸데 이어 모내는기계원동기를 리용하는 근 2 000대의 이동식소형벼탈곡기를 만들어 낟알털기의 기계화비중을 지난 시기보다 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였다.

결과 당창건 일흔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여가고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자고 하여도 기계화를 하여야 합니다.》

낟알털기준비도 혁신적안목으로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쥐고 내밀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책임일군들이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은 농업전선의 병기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동식소형벼탈곡기들을 만드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간 사실이 그 실례이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를 하면서 군에서는 농기계수리정비에 힘을 넣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탈곡기들의 능력을 타산해보니 낟알털기를 계획대로 10일동안에 끝낼수 없었다. 이로부터 군에서는 모든 분조들에 이동식소형벼탈곡기가 1대씩 차례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파철은 군중동원의 방법으로 마련할수 있지만 수천개의 탈곡원통의 마구리를 주물해내자면 석탄과 규소철 등이 있어야 하는데 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였다.

그러면 군에 없는것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문제가 이렇게 상정되자 이것을 해결하여 실어들이자면 수송기재가 여러대 있어야 하는것만큼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분담하자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군에서 책임지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일군도 있었다.

제기되는 과제를 아래단위들에 분담하자는 일군과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일군, 그것은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립하는 관점과 립장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것이였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분발심이 강해지는 법이다.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결과 주물품생산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군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련관고리들도 풀린다는 결론을 내리였다.

이렇게 되여 군책임일군들은 주물품생산에 필요되는 자재보장을 중심고리로 정한데 이어 이 문제를 맡아가지고 발이 닳도록 뛰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과 련계를 가지였다.

그후 여러대의 수송기재들이 해당 지역으로 떠났다. 석탄이 풀리면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였다.

이때부터 군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의 종업원들은 땜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주물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신월, 추정, 수원, 금성, 화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 주물품들이 공급되고 기계화작업반과 수리분조, 작업반들에서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군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농장들에서 이동식소형벼탈곡기들을 에비로 더 만들도록 한것이다. 그들은 분조마다 이동식소형벼탈곡기가 1대씩 차례지는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5~7명의 로력이 이동식소형벼탈곡기 1대로 시간당 수백kg의 낟알을 털어낸다고 볼 때 군적으로 하루에 많은 량의 낟알을 털수 있다.

하지만 탈곡기들이 교장으로 멎어서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수 없다. 그러므로 낟알털기를 10일동안에 확고히 끝낼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현실속에 묘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지를 돌아보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은 수북협동농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탈곡기를 만드는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였다. 이미 계획된 탈곡기들을 다 만들었다고 보고되였기때문이였다.

알고보니 작업반마다 예비탈곡기를 만들고있었는데 눌라운것은 베아링문제가 제기되자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이였다.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예비탈곡기를 만드는 농장일군들과 계획된 탈곡기를 다 만들었다고 나앉은 농장일군들, 이것 역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일군들의 관점에서의 차이였다.

현실은 농사에서 농기계를 무장장비와 같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새것을 창조하지만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주어진 조건에 포로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군안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농장처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군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탈곡기를 더 만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였다. 그에 따르는 원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따라세웠다.

결과는 좋았다. 짧은 기간에 군적으로 수백대의 이동식소형벼탈곡기가 더 생겨남으로써 낟알털기에서의 기계화비중을 지난 시기보다 2배이상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군의 현실은 일군들이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는 관점을 가져야 중심고리를 바로 찾아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새로 보충된 중요항목

천리마구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천리마구역안의 농장들에서 가을걷이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그 정형을 료해하던 구역일군들은 벼가을적 기문제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논벼생육이 늦어진데다가 이삭이 패지 못한 포전들도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런 현상은 가물피해를 크게 받은 다락논에서 심하게 나타나 가을걷이적기를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농장일군들은 이런 논면적이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시간이 있다는데로부터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에서 구역책임일군들이 받은 가책은 컸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한평한평의 땅에서 다 최대의 소출을 내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농장원들이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옳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담대한 배짱으로 내밀 때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후 구역에서는 논벼생육을 앞당겨 가을걷이적기를 보장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때 일부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까지 이삭패기와 여물기를 촉진시키는것은 해비침률이 높으면 별일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힘들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구역당책임일군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관점에서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면서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이 신심을 안고 팔을 걷고 나서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이삭패기를 적기에 보장한 강선협동농장의 농사경험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 농장에서는 8월 중순까지도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논벼들이 이삭을 패지 못하고있었다. 농장에서는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나노및 합성강화제를 잎덧비료로 주었다. 며칠후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비침률이 떨어졌지만 논벼의 잎색이 진해지고 빛합성능력이 훨씬 높아져 이삭패기가 촉진되였다.

이것은 벼가을을 할 때까지 내밀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였다.

일군들은 이 경험을 다른 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었다. 결국 가을걷이준비계획에 없던 중요항목이 보충되게 되였다.

즉시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 이 방법이 도입되였다. 이 강화제를 3 000배의 물에 풀어 5~7일에 한번씩 잎덧비료로 아침과 저녁시간에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삭이 팬 다음에는 카리리탄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마그네시움비료 등을 잎덧비료로 주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와 함께 양수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다락논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해주게 하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얼마전 이 포전들에 대한 생육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삭이 팬 논벼들이 여물기에 들어갔다.

새로 보충된 항목, 여기에 한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가을걷이준비에서 우리 일군들이 어떤 일본새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정 성 일

다시 따져보며 세운 대책

송림시 서송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작업반들에서의 가을걷이준비정형을 따져보는 송림시 서송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마음은 흐뭇하였다. 가을걷이준비가 잘되여 그만하면 빈틈이 없어보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퇴근길에 함께 올랐던 리당일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가을걷이준비에서 성과가 클수록 한개 단위의 농사를 책임진 우리는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야 당의 뜻대로 애써 지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 나라쌀독을 채울수 있다. …

그러면서 무엇인가 놓친것이 있는것 같다고, 그래서인지 마음을 더욱 놓을수 없다고 덧붙이는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이 받은 가책은 컸다.

그날 밤 그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공정별준비정형을 다시 따져보았다.

그러자 지난 시기처럼 벼알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동가리를 쳐놓기때문에 그리 문제될것은 없을것이라고 여긴것이 마음에 걸리였다.

더우기 가을비가 내리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는 없었다.

일단 비가 내리면 벼알들이 비물까지 빨아들여 인차 부패될수 있었다.

아무리 이동식소형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한다고 해도 포전에 쌓아놓은 벼단들에 대한 낟알털기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것은 그저 스쳐보낼수 없는 문제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수록 성과에 만족하여 마음의 탕개를 늦추었던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럴수록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쓰며 키잡이를 해주는 리당일군의 진정이 고마웠다.

다음날 농장에서는 이런 조직사업이 있었다.

매 농장원들에게 벼동가리당 두장의 비닐박막이 차례지도록 시급히 준비해서 공급해줄것. 낟알털기가 시작되면 개인 날에도 공급받은 비닐박막을 늘 가지고나오도록 할것.

이것은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애써 지은 낟알허실현상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대책이였다.

이것을 계기로 농장원들은 당의 뜻대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튼튼히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되였고 이런 교훈을 찾았다.

낟알허실은 이미 거둔 성과에서의 만족, 그로부터 초래되는 마음의 빈틈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사기자 김 성 일

더 많은 농기계부속품을

릉천군농기구공장은

그리 크지 않으나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탈곡기의 부속품과 소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군의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멘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일한데 있었다. 공장에서는 전기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어려운 기술적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만도 호미, 낫을 비롯하여 소농기구뿐만아니라 십여종에 수천점의 탈곡기부속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사회주의협동벌들에 짝 차넣히게 하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군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탈곡기가 설계된데 맞게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농장원들을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사색의 깊이는 실적의 높이

숙천군 대성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장들에서 일군들이 농사차비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실정에 맞게 바로 조직하고 농장원들을 발동하여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였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는 숙천군 대성농장 일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비꼈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물보장에 힘을 넣어 좋은 작황을 마련한데다가 작업반들에서 뜨락또르수리, 탈곡기정비 등 농기계준비에 힘을 넣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안심할수 없었다.

놓친것이 없겠는가. 관리위원장은 작업반포전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밝아보면서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한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논물떼기적기문제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논물떼기적기를 바로 정하는것이 한해농사에서 놓쳐서는 안될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논벼의 최알질량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높이면서도 가을걷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 벼베기와 거두어들이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이 바로 이 사업이였다. 따라서 논물떼기적기를 옳게 정하는것은 가을걷이시작에 앞서 진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논물떼기를 한 다음 논판마르는 정도가 포전마다 각이하여 수확고와 가을걷이에 영향을 미쳤던것이다. 실례로 제4작업반에서는 토양상태에 맞게 논물떼기적기를 정확히 정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수백kg이나 높였다. 반대로 어떤 작업반에서는 적기를 잘못 정하여 가을걷이기간에 논판이 잘 마르지 않아 정보당 수백kg의 낟알을 잃었다.

두 작업반의 실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해서 피타게 노력하는 단위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핍된 단위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농기술도 은을 낼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과학농사와 눈짐작농사, 이것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에서의 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사색의 태만자는 큰 건달군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말은 일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사색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으면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할수 없다.

교훈속에서 찾은 진리는 더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포전별토양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농장포전들의 구석구석을 메주밟듯 하면서 실농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고 밤이면 모여앉아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주고받으며 방도를 모색하였다.

결과 일군들은 논을 크게 해하성충적지논과 모래논으로 나누었다.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해하성충적지논에서는 가을걷이하기 한주일전에, 모래논에서는 3~5일전에 논물을 떼는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것이 은을 내게 되면 농장에서는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한 높이면서도 낟알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게 된다.

실천속에서 찾은 교훈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사색하며 뛰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기풍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우리 조국과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지켜주시였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전명성선수 금메달쟁취

2015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전명성선수가 타이에서 진행되고있는 2015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9일 남자력기 77kg급경기에 나선 전명성선수는 순간채기와 정확한 중심잡기로 끌어올리기에서 160kg을 들어올리고 제1위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대표단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대표단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의 회담이 8일과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대표단 성원들이, 상대측에서 부 후이 황 공업 및 상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성원들과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조선과 웰남사이에 무역, 중공업 및 화학공업, 경공업, 에네르기분야에서의 투자 및 경제협조에 관한 부문별회담들이 있었다.

이어 회담록이 조인되였다.

리룡남대외경제상과 부 후이 황 공업 및 상업상이 회담록에 수표하였다.

한편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은 10일에 있은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들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설명회에 참가하여 여러 개발구들과 관광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을 료해하였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여러곳 참관

부 후이 황 공업 및 상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건승열병식광장에서 탑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을 수호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경상유치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원산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하였으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상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연회 마련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단장인 부 후이 황 공업 및 상업상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10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대외경제상, 허철산 경공업성 부상, 김청근 채취공업성 부상,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공업 및 상업성대표단 성원들과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쫑동지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쯔엉 떤 쌍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웰남사이의 전통적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리명유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브라질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

브라질독립 193돐에 즈음하여 로베르뚜 뽈린 주조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10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혁명사적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로 침략자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최고사령부휘장과 작전실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 지략과 령활한 전법을 배우시며 선군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키우신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돌보이는 인민의 보안원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우리 군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김은철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꼭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김은철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3년전 2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저의 집에 들어선 김은철동무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땅크병으로 용감히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기 바란다고 정담아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얼마후 그는 아버지의 병치료에 필요한 귀한 약재와 성의껏 만든 토끼곰을 안고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후에도 계속되였습니다. 며칠후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비침률이 떨어졌지만 논벼의 잎색이 진해지고 빛합성능력이 훨씬 높아져 이삭패기가 촉진되였다.

이것은 벼가을을 할 때까지 내밀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였다.

일군들은 이 경험을 다른 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었다. 결국 가을걷이준비계획에 없던 중요항목이 보충되게 되였다.

즉시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 이 방법이 도입되였다. 이 강화제를 3 000배의 물에 풀어 5~7일에 한번씩 잎덧비료로 아침과 저녁시간에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삭이 팬 다음에는 카리리탄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마그네시움비료 등을 잎덧비료로 주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와 함께 양수기들의 가동률을 높여 다락논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해주게 하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얼마전 이 포전들에 대한 생육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삭이 팬 논벼들이 여물기에 들어갔다.

새로 보충된 항목, 여기에 한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가을걷이준비에서 우리 일군들이 어떤 일본새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정 성 일

니다.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은 물론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일도 잊지 않고 찾아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찾아와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교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저희들을 고무해주었습니다.

정말 김은철동무가 한 평범한 전쟁로병의 가정을 위해 바친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는 이런 인민보안원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성천군 읍 224인민반
홍 길 녀

민족의 정통무도로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태권도강자들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우리 선수들의 자랑찬 성과를 두고

내 나라의 하늘가에 만세의 환호성이 더더욱 높이 울려퍼진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되새겨볼수록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이 가슴벅찬 메아리속에 다비껴있다. 조국보위의 초소들마다에 차넘치는 수호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를 진감하는 끊임없는 비약의 발구름소리가.

뜻깊은 올해에 국제경기무대들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쳐가는 우리 체육인들의 련이은 승전소식은 또 얼마나 천만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는것인가.

지난 8월 한달도 그렇게 흘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련속패승을 이룩한데 이어 미더운 태권도선수들이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며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80여개 나라의 남, 녀태권도선수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벌가리아의 쁠로브디브시에서 진행된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는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높아지는 태권도기술수준과 열의를 잘 보여준 의의깊은 대회였다.

우리 나라 태권도협회일군인 한충일동무의 말에 의하면 여러차례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전적이 있으며 최근년간에 은퇴하였다가 우승의 꿈을 안고 이번 대회에 다시 참가한 실력있는 선수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태권도기술이 비교적 높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뿐아니라 아프리카나라들에서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번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기 대륙에서 높아지고있는 태권도열의를 잘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시킬뿐아니라 정신수양에도 좋은 체육종목이며 세상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무술》이라고 한결같이 공인하고 《꿈속에서 그리던 무술》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는 조선의 정통무도 태권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지구상의 6 000만명이상에 달하는 태권도인들과 세상사람들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는 세계도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태권도기술의 면모를 알수 있게 한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의 맞서기 여러 세부종목경기들만 놓고보아도 로씨야, 우크라이나, 벌가리아, 우즈베끼스딴 등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순위권에 입선하였던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참가력사에 열다섯번째의 종합 1위를 새긴 우리 선수들의 성과는 결코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였다.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대회일정에서 제일 마감을 장식한 남자단체맞서기결승경기를 앞둔 때였다.

우리 선수,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앞에 림위석선수가 자그마한 주머니를 내놓았다. 붉은색천으로 만든 그 주머니속에는 조국의 흙이 들어있었다. 림위석동무의 아버지가 선수권대회참가를 위해 조국을 떠나게 되는 아들에게 보내여왔던 흙주머니였다.

이것을 늘 심장속에 품어안고 싸워 꼭 1등을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달라는 당부가 슴배여있는 흙주머니, 림위석동무가 예선단계경기로부터 결승경기에 이르기까지 마지막끝까지 용맹하게 싸워 이번 선수권대회 개인맞서기 64㎏급경기에서 단연 우승함으로써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2련승을 쟁취하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조국의 숨결이였다.

감독, 선수들모두가 한사람한사람 돌려가며 백두의 넋이 력력히 어려있는 조국의 흙주머니를 가슴에 품어안았다.

그럴수록 누구나가 이역땅이 아니라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땅에 있다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긴말이 필요없었다. 모두가 심장으로 맹세다졌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이런 필승의 기상을 안고 결승경기장에 나선 남자선수들이였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체육관에서 진행한 다른 경기들과는 달리 태권도경기에서 제일 큰 무게를 가지는 남, 녀단체맞서기결승경기만은 쁠로브디브시에 있는 오랜 력사건축물에서 특색있게 진행하도록 준비사업을 하였었다.

그만큼 세계의 초점이 최대로 집중되고 대회의 최절정을 장식하는 단체맞서기결승경기였다.

단체맞서기경기에는 매 팀에서 5명의 기본선수와 1명의 후보선수를 포함한 6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전단계경기들에서 우간다, 벌가리아, 우즈베끼스딴팀을 물리치고 비교적 높은 기술을 소유한 선수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팀과의 결승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며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렸다.

대회기간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벌가리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일군들과 그 가족들이 열광적인 응원으로 신심을 더해주었다. 앞서 출전한 장용일, 홍범선수들이 각각 이긴데 이어 한성민선수가 세번째로 출전하였다.

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두 팀에서 5명까지 출전하며 각각 2분 1회전경기를 진행한다. 한성민선수의 상대는 이번 대회 개인맞서기 85㎏급경기에서 1등을 하였을뿐아니라 몸무게도 많이 차이나고 키는 10여㎝나 더 큰 선수였다.

실력도 높고 큰 키에 비해 동작이 매우 민첩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최후승리를 심장으로 다짐하며 경기장에 나선 한성민선수는 말그대로 펄펄 날았다.

지난 시기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여러차례나 우승하였으며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태권도강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우리 나라의 한성민선수가 자기의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180° 뛰며높은데반대돌려차기와 같은 점수가 높은 동작들을 여러차례나 성공시켜 관람석을 꽉 채운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그의 재치있는 반공격에 상대선수는 어쩔새없이 뒤로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경기는 한성민선수의 통쾌한 승리로 결속되였으며 우리 선수들은 남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하여 경기장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올리였다.

남자개인2단틀경기와 남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의 우승 등 대회기간에 금메달을 비롯한 여러개의 메달을 쟁취한 한성민선수는 이번 대회의 남자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승리의 개가는 우리의 녀자태권도선수들속에서도 높이 울려퍼졌다.

단체맞서기경기, 4개 몸무게급의 개인맞서기경기, 개인2단, 3단틀경기, 단체틀경기, 개인특기경기, 호신경기에서의 빛나는 승리.

당과 조국에 드리는 이 하나하나의 승리에 우리 녀자선수들이 훈련장과 경기장들을 뜨겁게 달군 강의한 정신력과 필승의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태권도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세계우에 조선의 승리를 우뚝 올려세울 하나의 열망을 안고 이들이 넘고넘어온 훈련의 어려운 고비들은 그 얼마였던가.

세계는 잠자지 않는다. 우리를 따라앞서려는 도전은 지금 이 시각도 계속된다.

필승의 보검은 명백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빨찌산식공격전법이다. 위대한 태양이 밝히는 승리의 주로를 따라 앞으로!

선수들모두의 심장이 이렇게 불탔다. 원수님 밝혀주신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새로운 특기, 새로운 전술을 련마하기 위해 훈련의 한초한초를 불같이 이어갔다.

훈련강도가 높아질수록 힘에 부칠 때도 적지 않았다.

과연 그때 무엇이 이들에게 힘을 주었던가.

하루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녀자선수, 감독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독보를 진행하였다. 들을수록 크나큰 격정이 가슴마다에 파도쳐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며 조국해방의 신심을 북돋아주신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며 그이께서 창조하신 령활한 전법으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며 승리의 앞날을 앞당겨간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들은 그대로 우리 선수들에게 필승의 의지를 더욱 굳혀준 불길이였다.

오후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면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이 합창하는 《애국가》가 높이 울려퍼지군하였다.

…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
　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
　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
　이 빛내세

…

무비의 힘이 용솟음쳤다.

가슴에 차넘치는 열정을 다 바쳐 백두산대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리라는 하나의 의지가 청춘의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였다.

빨찌산식공격전법의 강자로 준비하기 위한 훈련은 말그대로 전투였다.

대회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장경옥감독의 알심있는 지도밑에 특기를 련마하고 전술을 더욱 완벽하게 다져나가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장에서는 전투적인 웨침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주장인 신정화선수가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은》 하고 선창하면 다른 선수들이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화답하였다.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는 정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정신》!

이런 정신의 소유자들이 대회장에서 일으킨 금메달열풍은 얼마나 자랑찬것이였던가.

훈련의 나날 다지고다져온 우리 식의 공격전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69㎏급경기를 비롯한 여러 몸무게급의 개인맞서기경기에서 단연 우승한 신정화, 리은정, 김수련, 최수련선수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기 개인틀경기선수로서는 전망이 없다고 하던 김수련선수는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녀자개인2단틀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이번 선수권대회 녀자개인틀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아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어제날 무용을 하다가 16살에 태권도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주고 필승의 정신도 안겨주며 오늘에는 세계선수권보유자로까지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녀자경기에서도 역시 최절정은 단체맞서기경기로 장식되였다.

녀자단체맞서기결승경기는 남자단체맞서기결승경기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결승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팀 선수들의 이름과 지난 시기의 전적을 장내에 소개하였다.

신정화, 최수련선수를 비롯한 우리 팀 선수들이 앞서 진행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거둔 자랑찬 전적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기장에 나오자 관람석에서는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 지난 시기의 전적만을 가지고 나서지 않았다.

남포시에 살고있는 리은정선수의 어머니가 밤새워 만든 공화국기들을 품에 안고 이역의 경기장으로 온 그들이였다.

뜻깊은 올해에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은정을 잊지 말고 조선의 태권도인답게 잘 싸워달라는 당부가 차넘치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종업원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필승을 더욱 굳게 다짐한 그들이였다.

훈련의 나날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며 고무해주던 중앙체육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의 그 진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그 모든것을 다 안고 최후의 결전장에 나선 우리 녀자태권도선수들이였다.

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나선 선군조선의 태권도인들이라는 드높은 긍지, 당과 조국의 믿음에 승리로 보답하리라는 필승의 신념은 경기전부터 상대팀을 압도했다.

결승경기전 준비훈련을 하며 우리 선수들이 부른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박력있는 노래소리가 경기장을 진감했다.

기어이 승리를 안고 백두산이 빛나는 조국으로 가리라!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장에서 높이 발휘했던 빨찌산녀전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이 태권도경기장에서도 끝없이 분출되였다. 빨찌산식공격전법의 위력을 가슴후련하게 터친 활무대였다.

불의의 공격과 순간반타격, 재차공격…

우리 선수들이 불의에 여기를 치고 또 저기를 치며 숨돌릴새없이 들이대는 공격에 상대팀선수들은 자기의 전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결승경기에 출전한 박미향, 신정화, 최수련선수들모두가 4: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상대선수들을 이김으로써 우리 팀은 로씨야팀을 3:0으로 누르고 마침내 녀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 최후승리를 떨치여 어머니조국에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　＊

장경옥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 단체맞서기결승경기까지 우리들에게 신심을 더해주고 승리의 봉우리에로 떠밀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참으로 뜻깊은 말이였다.

사실 우리 태권도선수들이 선수권대회장으로 떠나던 때로 말하면 조국앞에 준엄한 시기가 닥쳐왔던 때였다.

바로 그러한 때 자기들을 국제경기무대로 떠밀어준 당의 믿음은 얼마나 크나큰것이였던가.

이역땅의 숙소에서 그 나라 텔레비존방송을 통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까지 뵈옵게 된 우리 감독, 선수들의 환희는 하늘에 닿았다.

꿈결에도 뵙고싶은 태양같이 환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이겼다, 오늘의 경기무대에서도 승리는 우리 조선의것이다는 확신이 누구의 가슴엔들 차넘치지 않았으랴.

승리는 이렇게 솟구쳐올랐다. 세계최고급의 태권도경기무대에서도 내 나라의 국력은 이렇게 힘있게 과시되였다.

백두의 공격정신, 빨찌산식공격전법은 앞으로도 태양의 빛발찬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태권도모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하는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히 빛날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

각지에서 보내여온 독자들의 편지를 읽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이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과 함께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감사의 목소리가 뜨겁게 실린 편지들이 본사편집국으로 계속 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영광군에서 사는 한 농장원의 편지에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가슴뜨겁게 느끼던 나날이 감동깊게 적혀져있었다.

그의 병을 진단한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몹시 긴장되였다고 한다. 한것은 이런 병명의 환자들을 치료해본 경험이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치며 수차의 협의끝에 끝내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아냈으며 대담하게 수술할것을 결심하였다. 결과 환자는 기적적으로 소생할수 있었다. 다시 태여난 기쁨을 안고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평범한 농장원인 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값비싼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고보니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인간사랑의 정치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2.8직동청년탄광 채탄공의 안해는 자식때문에 울고웃는것이 어머니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딸은 5살때부터 심하게 앓으면서 다리와 손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딸이 커갈수록 저의 마음속그늘도 커만 갔습니다. 가슴을 조이며 살던중 어느날 저희 모녀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병원의료일군들은 탄광에서 왔다고 저희 모녀에게 해빛이 잘 드는 입원실을 내주며 각별히 위해주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이 우리 딸의 병치료를 위해 밝힌 밤이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밤을 새우고도 맛좋은 음식들을 직접 해오고 여러가지 보약들도 안겨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주던 그 모습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병을 봐주고 병을 보이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친혈육처럼 하나의 혈연적뉴대를 잇고 사는 아름다운 우리 사회!

텔레비존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 보고 듣던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채탄공의 안해가 받아안은 여운은 참으로 컸다.

하기에 그는 편지에서 돌우에도 꽃을 피울 의료일군들의 정성이야말로 명약중의 명약이며 이는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전쟁로병이라고 늘 관심하며 조금만 아파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세심히 돌보아주는 평양시제2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을 소개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한 염주군의 한 할아버지의 편지에도,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의해 귀여운 옥동자를 안아보게 된 교육과학원 녀성연구사의 편지에도 만사람의 눈시울을 적시는 뜨거운것이 있었다.

정녕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편지마다에서는 우리의 인민적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력사발전의 매 단계마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의 노래,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훌륭히 받들어가는 의료일군들을 찬양하는 인민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었다.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녀성은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10년세월 아기의 고고성을 들어보지 못하던 저희 부부가 귀여운 옥동자를 안아볼수 있게 해준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퇴원할 때에는 평양산원 의료집단의 성의어린 애기포단, 애기옷, 산꿀까지 받아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사랑을 한생토록 가슴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이렇듯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의 격정이 차넘치는 편지마다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가려는 불타는 맹세가 메아리되여 울리고있었다.

주령봉

참된 주인, 진정한 학부형이 되여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교육지원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행들이 나날이 꽃펴나고있다. 스스로 학부형이 되고 후원단체가 되여 교육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고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가운데는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업소의 일군들이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뼈저리게 인식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사업소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았다. 하지만 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을 능란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인재력량이 부족한것이였다.

중앙과 도안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며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들을 배워오는 한편 사업소자체로 인재력량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들은 인재가 얼마나 귀중하며 그 한명한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가를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그럴수록 자기 단위 사업은 물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야 하겠다는 애국심이 가슴속에 세차게 불타올랐다. 하여 이들은 교육사업과 관련한 문제라면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고 주인이라는 관점에 서서 두팔걷고 도와나섰다.

지난해 겨울방학을 떠나는 도안의 대학생들을 위해 수십대의 뻐스가 동시에 기동한것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야영이나 견학, 답사를 갈 때에도 이들은 운수수단이 긴장한 속에서도 사업소의 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하자, 이것이 사업소일군들이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면서 내세운 원칙이였다.

실례로 신의주시 광복고급중학교의 지붕공사를 적극 도와준 사실을 들수 있다.

학교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지붕공사를 와닥닥 끝낼것을 계획하고있었으나 어방없이 모자라는 기와문제로 하여 안타까와하며 속을 썩이고있었다.

우연히 이것을 알게 된 지배인 리은철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실 사업소에는 많은 량의 기와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사업소구내에 새로 건설한 건물에 씌우려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며칠밤을 새워가며 전투를 벌려 찍어놓은것이였다.

당장 기와씌우는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종업원들의 열의도 높은 때였다. 그렇다고 사업소옆에 자리잡고있는 학교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수도 없었다.

어느것이 선차인가 하는 량심의 물음앞에서 리은철동무는 학교를 도와주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사업소의 종업원들앞에 터놓았다.

지배인의 그 진정은 종업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후원단체도 아닌 이곳 사업소에서는 지붕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기와를 통채로 보장해줌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물론 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자동차가 불비하여 학생들의 운전실습교육이 지장을 받는다는것을 알고는 실습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름이 적게 들고 안전성이 보장된 실습용자동차를 새로 해결해준 이야기며 학생들의 등교길을 념려하여 새 다리를 놓아준 일, 학교꾸리기사업에 필요한 많은 량의 각종 자재들을 실어다준 사실…

어려운것이 적지 않은 때에 후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참된 주인이 되여, 진정한 학부형이 되여 도와나선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과연 그 무엇에 비길수 있겠는가.

이곳 사업소일군들의 남다른 헌신성과 애국심앞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세기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자기 몫을 스스로 찾아할줄 아는 사람, 우리 교육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일먼저 찾게 되는 일군들이야말로 당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참된 일군,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것이다.

김성민

경성군염소목장 지배인 태동환동무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일군

경성군 읍에서 30리 떨어진 화상골에 자그마한 염소목장이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에서 목장이 차지하는 몫은 크다.

이 성과속에는 종업원들 누구나 《우리 지배인》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태동환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이 바라는대로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태동환동무가 새로 꾸려진 염소목장 지배인으로 임명받은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이였다.

그가 해발 360m되는 목장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아무리 둘러보아야 보이는것은 사방 둘러막힌 산들이였고 들리는것은 산골물소리뿐이였다.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에 잠겼던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합치는것으로부터 지배인의 첫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100여명 종업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늘 종업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 나날에는 앓고있는 종업원을 등에 업고 군인민병원으로 달려가던 밤길도 있었고 남모르는 사연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는 종업원의 집을 찾던 새벽길도 있었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산골짜기에 정적이 깃든 깊은 밤 갑자기 누구인가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지배인동지를 좀… 갑자기 저의 안해가 해산을…》

그 말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태동환동무는 급히 안해와 함께 종업원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즉시 종업원의 안해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섰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안해가 《종업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때없이 지배인을 찾는군요.》 하고 말하자 태동환동무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얼마나 좋소. 난 기쁘기만 하오.》

그때부터 언제나 열려있는 그의 집대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종업원들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지배인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마음들이 합쳐지니 목장일도 잘되였다.

지배인은 양어장도 목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할것을 결심하였다.

우리가 고생을 하면 후대들이 락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목장마을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자는 그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심장을 울렸다.

곧 돌격대가 조직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태동환동무는 전투장에서 돌격대원들과 같이 침식을 하며 양어장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는 양어장건설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청진, 회령, 길주 등 먼길을 오고가며 새끼물고기들을 구해왔다.

그가 새끼물고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초롱에 물을 갈아대면서 목장에 돌아왔을 때 누구인가 물었다.

《지배인동지, 여기야 목장이지 양어장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그 말에 태동환동무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흔연히 대답했다.

《당정책관철에서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큰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지. 저기 쓸모없이 흘러가는 물을 잡아 양어를 하면 우리 목장사람들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소.》

낮에는 양어장을 건설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양어기술을 터득하고 밤에는 그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이른새벽에는 목장을 돌아보는 태동환동무. 그가 언제 자고 깨여나는지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이런 피타는 노력이 있어 목장에는 5 000㎡의 면적을 가진 양어장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기와도 자체로 만들기로 결심한 태동환동무는 그에 필요한 진흙을 얻기 위하여 애써 노력한 끝에 마침내 목장주변에서 찾아내였다.

태동환동무와 종업원들은 기와생산에 필요한 소성로도 목장의 실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쌓고 분쇄기와 성형기도 제작하여 기와를 짱짱 찍어내였다.

이렇게 찍은 기와로 탁아소와 유치원은 물론 염소우리들에도 씌웠다.

오늘 어제날 화상골의 흔적은 찾아볼수 없이 변모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높은 산인 관모봉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산간벽지에 염소떼가 구름같이 흐르고 특색있게 꾸려진 2층건물에는 젖가공실, 버섯종균배양장과 식료가공실들이 갖추어져있고 게사니와 닭, 토끼들이 우리마다 넘쳐나고있다.

40여동의 아담한 살림집들마다에는 줄당콩이 키를 솟구며 자라고 마당에 놓은 벌통들마다 꿀벌들이 날아들고있다.

아침마다 군안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염소젖을 실은 마차가 읍으로 달린다.

사람들이 천지개벽된 목장마을을 부러워하고있다.

《우리 지배인동무와 같은 일군과 함께라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다는 배심이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목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신철

반통일세력의 준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다. 우리 민족과 광범한 국제사회가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발표를 열렬히 환영하며 북남관계개선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는 때에 이와는 상반되게 일부 불순세력은 현정세발전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대결상태를 유지하려고 피하고있다.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해소된 직후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북의 미싸일도발》이니 뭐니 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망동을 부린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는 내외불순세력의 도전에 각성을 높이며 모처럼 마련한 긴장완화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남관계의 력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반대하면서 동족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 반통일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의 력사이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급속히 발전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되였다. 6.15통일시대를 돌이켜보아도 그렇다. 2000년 4월 8일 북과 남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개최를 합의하고 그것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우리 겨레모두가 환영해마지 않은 이 합의서발표에 대해 유독 미국만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불평한 심기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는가 하면 미국정계인물들은 북남합의서에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재확인》한것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분나쁜 대목》이라고 걸고들었다. 미국은 지어 남조선당국자에게 미군철수문제가 아니라 《북의 핵과 미싸일문제》를 의제로 상정하라고 호통쳤다. 북남합의서발표경위를 설명하러 미국에 간 당시 남조선외교통상부 차관이 《개새끼》라는 쌍욕까지 먹은것은 미국이 북남관계개선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얼마나 리성을 잃고 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그후 북남사이에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여 온 민족을 기쁘게 해주고있을 때에도 미국은 어떤 협상이든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비끄러매놓았다. 그로 말미암아 북남대화가 약속된 날자에 열리지 못하고 협력사업들이 힘겹게 진척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은 전 미국방장관, 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등을 내세워 《북의 추가핵시험가능성》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여론을 내돌리면서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이 북남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고 현정세흐름을 돌려세우려는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임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의 반통일책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실현의 근본장애이다. 미국의 북남관계파괴책동을 방임해둘때 어렵게 마련된 북남사이의 화해국면이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할수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북남관계는 결코 외세의 반통일책동의 롱락물로 될수 없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여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것은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떨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외면하면서 북남관계를 불순세력들의 반통일적흉계의 롱락물로 내맡기는것은 더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가 전진할수록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과 남은 얼마전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귀중한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그에 따라 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추동해나가는데서도 얼마든지 손을 맞잡고 긍정적결과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북과 남은 오래동안 쌓인 불신의 감정과 견해의 차이를 대담하게 극복하며 관계개선의 길로 계속 전진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력사는 쌍방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기로 합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남의 장단에 놀아남이 없이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02년 4월 남측특사의 평양방문과 4.5공동보도문의 발표로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가 다시 회복기에 들어서자 미국은 그 무슨 위성촬영자료라는것을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에 넘겨주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여론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출판물들은 《보도가 나온 시점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것은 1990년대초 북남고위급회담 등 북남사이의 대화가 적극 추진될 당시 미국이 그것을 차단할 목적밑에 넣번지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공개한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이런 비렬하고 악랄한 반통일책동은 지금 또다시 제현되고있다. 미국의 부추김과 배후조종밑에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이 북남고위급접촉과물 놓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며 합의리행에 제동을 걸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에서 그 무슨 《속도조절》이니 《신중한 태도》니 하는 잡소리들이 뒤여나와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것은 무심히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된데 대해 안도의 숨만 내쉬면서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니다.

북남관계가 불순세력의 준동에 의해 다시 대결에로 뒤걸음치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것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남당국이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감을 자각하고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할 때이다.

최 철 순

세계가 공인하는 인민의 나라

여러 나라 인사들 칭송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칭송하였다.

메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9월 9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신 조선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 세계가 공인하는 인민의 나라이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사상으로 불리우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치를 펼쳐가고있다.

대외활동에서도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지향해나가고있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록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이지만 위대한 사상과 강대한 군사력,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갖춘 강국이다,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 침략책동속에서도 핵억제력을 갖추고 인공지구위성을 자체로 생산하여 쏘아올린 강위력한 국가이다고 격찬하였다.

기네 쏭포니아종합대학 교원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은 시종일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하여왔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켰다.

인민생활향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온갖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체육강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은 이 웅대한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것이다.

딴마 미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조선을 불패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을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조선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말레이시아 씨티 월드 부동산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는 조선이 머지않아 강성국가를 건설하리라고 확신하고있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제시여 조선은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자주와 진보의 상징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맑은 아침의 나라》

로씨야신문들의 글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기관지 《쁘라우다 쁘리모리야》 제31호가 《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본사책임주필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웅근 두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신문은 일부 대중보도수단들이 조선에 대한 그릇된 선전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방문기간에 발전된 하부구조를 갖추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등 사회적혜택을 누리며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는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목격하였다.

미국의 책동으로부터 피로써 쟁취한 전취물들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조선인민의 노력은 정당한것이다.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반미국가들이 미국의 《민주주의》공세앞에 무너질 때 조선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는 자기의 독특한 자주정책을 실시하고 집단주의를 고수하면서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신심드높이 전진하여왔다.

평양의 거리는 공기가 청신하며 붉은넥타이를 맨 학생들, 밝은 옷을 짓고 출근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차고넘치였다.

조선의 건축술은 매우 독특하다.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지난 3년간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육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현지의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을 잘 알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선군정치를 실시하고있다. 국방력강화에 힘을 집중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핵을 보유하고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대처하여 그리고 남조선이 미국의 핵무기고로 전변된 오늘의 현실에서 필수적인것이다.

신문은 방문단성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이 나라 신문 《브레먀 베레본 + TV》 제29-32호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민심에 등을 돌려대는 자멸행위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성립을 전제로 《자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자료를 미리 작성하여놓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시는 방위상이 하였고 집행은 륙해공《자위대》의 일체운영을 맡고있는 통합막료감부가 하였다고 한다.

작성된 때부터 여러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자위대》의 내부자료를 놓고 일본의 민심이 분노하고있다.

일본의 헌법연구사그루빠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내부자료작성이 《립법권의 침해》, 《여당의원들도 격분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중참량원을 통과하기도 전에 방위성이 법안성립이 될것이라고 앞질러 단정하고 그에 해당한 《자위대》의 새 운영과제를 내부자료로 작성한것은 패망후 일본력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단행한 행위이므로 명백히 립법권의 침해이다.

일본방위성과 《자위대》가 이제는 국회를 내려다보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일제시기에 바로 군부가 행정권과 립법권을 다 틀어쥐고 아시아침략에 발광하였다.

이 사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어떤 법안이며 이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가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이전 정치가들과 야당들, 각계층 군중은 정부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의결한 때부터 그 법안이 전쟁법안이라고 규탄해왔다. 옳은 말이다.

법안은 명실공히 군국주의와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안이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있다. 《자위대》의 지원대상도 미군만이 아니라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바꾸어놓고있다. 《집단적자위권》도 공공연히 행사하겠다는것이다.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자위대》는 미군과 그 동맹군들이 있는 작전지역에 들어가 활동할수 있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군무력이 집중되여있고 긴장상태가 매우 첨예한 곳이다.

《자위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과 함께 뻐젓이 활개치는 경우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일단 전쟁이 일면 《자위대》의 개입, 일본의 군사적개입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가는 길은 명백히 재침의 길, 전쟁의 길이다.

현 일본정부는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강행추진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자국의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고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공헌》으로 된다는 귀맛좋은 말들을 련속 쏟아내고있다. 그와 함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따른 일본의 무력행사는 《일본의 자위를 위한 조치》, 《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로 된다느니, 이에 대한 《국민들의 리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하지만 공개된 내부자료의 내용과 그 작성과정은 일본정부의 선전이 자국민의 불만과 항의를 눅잦히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폭로해주고있다.

며칠전 일본 각지에서는 정부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하는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 특히 도쿄에 있는 국회의사당가까이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12만명이 참가하였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떨쳐나선 어머니들은 《전쟁법안을 반대한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고 청년들은 현 집권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여러 야당 당수들도 시위에 합세하였다고 한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분노에 차서 터뜨리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의와 진리는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날뛰는 한줌정도의 지배층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재침의 총알받이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들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청춘의 꿈을 꽃피워보려는 청년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일본반동들이 민심에 역행하여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곧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이다.

과거에 일제가 평화를 바라는 국내민심을 총칼로 억누르고 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씌먹으면서 수십년동안 대륙침략에 발광한 대가는 수치스러운 패망이였다. 오늘의 일본이 그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일본지배층이 진실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공헌을 하려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자국의 방위에 대해 생각한다면 군국화책동을 한시바삐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다.

리 경 수

웰남조선친선유치원 새 학년도 개강식 진행

2015-2016 새 학년도 개강식이 5일 웰남조선친선유치원에서 진행되였다.

개강식에는 웰남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 웰남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성원들, 하노이시인민위원회 인사들, 웰남조선친선유치원 원장과 교양원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유치원원장과 교양원들은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반, 김정일반이 있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선진적인 학령전교육단위로서 교육교양사업을 계속 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

경제 침체, 실업자 증가

일본에서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최근 도쿄 쇼꼬엔구소는 7월에 전국적으로 787개의 기업체가 파산당하였다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1 200억 7 000만㎀에 달하였다.

한편 에스빠냐에서 8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보다 2만 1 679명 더 늘어나 406만 7 955명에 달하였다. 프랑스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고있다. 3일 이 나라 통계국은 2.4분기에 전국적으로 24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62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스웨리예의 학교들에서 폭력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이 나라 신문 《다겐스 니헤테르》가 전국의 학교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최근에 폭행을 당한 9~15살의 학생들의 수가 6만명에 달하였다. 그들중 절반이상은 자기들이 4개월전부터 폭행을 당하여왔다고 울분을 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 5명중 1명은 폭행을 당하고도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라 한다.

물가인상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뛰여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8월 19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7월에 전국적으로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 비싸졌다.

살림집가격 인상

영국에서 살림집가격이 뛰여오르고있다. 8월 21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7월까지의 3개월동안에 캠브리지시와 옥스포드시에서만도 살림집가격이 각각 10.9%, 9.8% 인상되였다 한다. 카나다에서도 살림집가격이 계속 올라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7월에 전국적인 살림집평균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9%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방쿠버시에서는 11%이상이나 뛰여올랐다 한다.

만성질병 만연

스위스에서 만성질병이 만연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이 암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 한다.

살인범죄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8월 18일 오하이오주에서 한 녀성이 자기 자식들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건이 드러났다. 밝혀진데 의하면 그 녀성은 지난 13개월동안에 젖먹이어린이를 포함하여 자기가 낳은 3명의 자식을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한다.

한편 8월 19일 미주리주의 쓴트 루이스시에서는 2명의 경찰이 부당한 구실로 총사격을 가하여 18살 난 흑인청년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같은 날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구락부청사부근에서도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구 사격을 가하여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총사격이 가해지자 주변일대는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매일과 같이 발생하는 총기류범죄는 《만민복지》,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군에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들

무모한 무장장비 증강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무장장비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UPI통신은 미해군이 보잉회사에 해상감시 및 정찰임무수행에 리용할 최신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9대를 주문하였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적들의 위협책동을 용납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8월 27일 한 연설에서 어떤 환경속에서도 자국의 령토완정을 위협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이 풍부한 자연부원과 인적자원을 가지고있는 안정된 나라이라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그러한 리유로 하여 유태복고주의정권은 반이란선전깜빠니야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서방과 유태복고주의 정권이 핵계획을 구실로 이란에 타격을 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이란정부는 적들의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로동법 개정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최근 새로 개정된 로동법에 수표하였다. 법에 따라 나라에서는 기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마구 축감하는것이 금지되였다. 대통령은 새 법에 유리한 경제 및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의도가 깔려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건설 착공

아랍추장국련방에서 2일 원자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였다. 이 발전소는 2020년까지 완공되여 전력생산에 들어갈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는 핵에네르기를 리용하여 국내전력수요의 12%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매장지 발견

에짚트의 북부앞바다에서 최근 새로운 가스매장지가 발견되였다. 가스매장량은 30조㎥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8월 30일 이 나라 정부는 새 매장지가 발견됨으로써 가스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비렬한 처사

얼마전 미국에서 국제의회동맹 성원국들의 국회의장대회와 녀성국회의장들의 제10차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여기에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이 참가하지 못하였다. 미국이 훼방을 놓았기때문이다.

미국은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이 저들의 입국제재명단에 포함되여있다고 하면서 원새끼를 꼬먼 끝에 이러저러한 제한조치들을 포함시킨 사증을 발급하였다. 그 사증으로는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이 국제의회동맹이 조직하는 여러 상봉들과 회의들에 참가할수 없게 되여있었다.

결국 로씨야는 련방평의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의 미국방문을 취소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로씨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보다 로골화하고있는 미국이 이번에 저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속심을 다시한번 적라라하게 드러냈다고 할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독선적이고 이중기준적인 전횡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유엔본부가 뉴욕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미국의 부속기구로 되는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대해 훼방을 놀 명분은 더욱 없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국제기구의 활동에까지 적용할 권리를 가질수 없다. 미국식대로라면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에 주재하고있는 모든 국제기구들이 해당 나라의 정치적의사에 따라 자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론리가 선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유독 미국만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황당한 론리와 가치관으로 유엔우에 군림하고 세계를 좌우지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 오는 일부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의 사증발급을 제멋대로 거부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특권을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 실례는 허다하다.

최근년간에만도 미국은 유엔총회에 참가하게 되였던 이란, 베네수엘라대표들의 사증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수단대통령의 유엔총회참가를 가로막아나섰다. 지어 미국대통령이 유엔주재 신임이란대사의 미국입국을 막는데 목적을 둔 유엔주재 일부 대표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은 철두철미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파쇼망상, 세계는 미국에 종속되여야 한다는 지배주의리념의 발로이다.

《미국은 특수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은 미국의 효파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고 미국의 국내법은 국제법우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미지배층의 후안무치한 사고방식이다.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의 국제회의참가를 방해해나선 미국의 이번 행동도 그러한 사고방식에 따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거만한 태도에 대한 로씨야의 격분은 극도에 달하였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당국의 행동은 전혀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공인된 국제법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하는것으로 되며 자국령토에서 다무적연단을 주최하는 국가들의 의무에 어긋나는것이다. 국제문제들에 대한 각이한 견해를 뻔뻔스럽게 억누르고 파렴치하게 저들이 조직하지도 않은 중요행사에 누구는 참가하고 누구는 참가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는 국가에 다무적연단을 주최할수 있는 도덕적권리가 있는가?》라고 단죄하였다.

로씨야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였다.

쏘련인민배우이며 로씨야국가회의 대의원인 이오씨프 꼬브존은 미국이 어리석은 제재를 적용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라면 미국이 로씨야와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는데 대해 알도록 하기 위해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하는 발언이다.

그뿐이 아니다. 로씨야국가회의 한 대의원은 유엔사무총장과 자국외무상에게 유엔본부를 스위스로 옮길데 대한 제안이 담긴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요청서는 유엔이 국제무대에서 최고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영향력행사수단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것, 미국은 유엔의 사업에 임의의 공식인물들이 참가하는데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것, 그것은 유엔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된다는것, 유엔본부를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로 옮기는것이 필요하다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올해는 유엔이 창설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로씨야는 유엔의 창설에 큰 몫을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로씨야는 미국에 의해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였다. 이런 수모를 받고 가만있을 나라가 파연 어디 있겠는가.

남에게 못되게 놀면 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 국제사회를 눈아래로 보며 제멋대로 놀아대는 미국의 전횡은 용납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로씨야도 유엔도 모두 저들의 발밑에서 굽신거리게 하고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라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쇠진할대로 쇠진해져 종말을 예감한자들의 필사의 몸부림, 최후의 팡증에 불과한 미국의 비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51143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편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